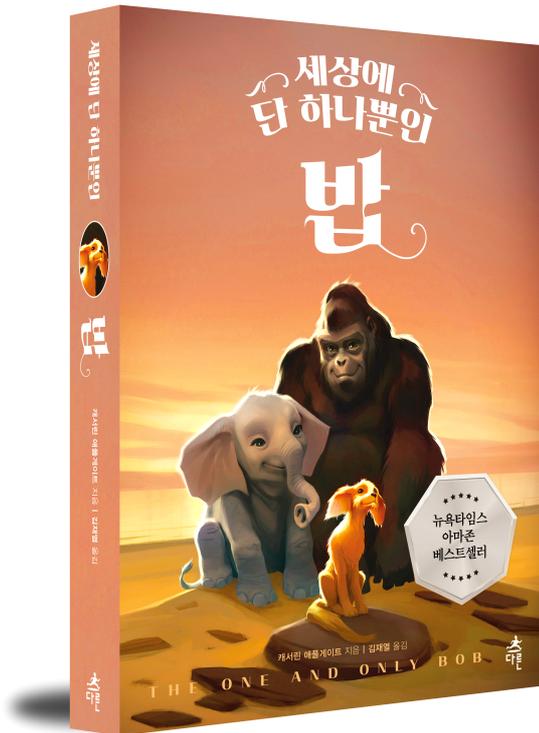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밥



#반려동물 #성장
 #우정 #약속
 #모험 #용기
 #희생 #사랑
 #자유 #유대감

강아지 밥은 함께 태어난 형제들과 함께 상자에 담긴 채 낫선 고속도로에 버려졌습니다. 떠돌이로 지내던 밥은 줄리아라는 소녀의 집에 들어가 살지만 여전히 떠돌이 시절의 패기를 품은 채 인간의 손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지요. 어느 날 밥은 동물 보호소에 사는 고릴라(아이반)와 코끼리(루비) 친구를 찾아갔다가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폭풍우로 보호소 건물이 무너지고 동물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밥은 친구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고속도로에 함께 버려졌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누나(보스)의 목소리를 환청처럼 듣습니다. 밥은 그 소리를 따라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긴박한 순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토론 활동]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1. 우정과 믿음에 대하여

1-1. 밥은 아이반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다”(26쪽)

이 말을 듣고 밥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1-2. 밥과 아이반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인간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1-3. 밥이 처음 서커스 쇼핑몰에 왔을 때 아이반의 배 위에 올라가 잤습니다. 아이반은 왜 밥이 자신의 배 위에서 자는 걸 허락했을까요?

1-4. 밥은 푸들인 스니커즈를 왜 싫어할까요?

2. 자유에 대하여

2-1. 밥은 왜 보소소를 싫어할까요?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에게 밥이 느끼는 감정을 묘사해 보세요.

2-2. 밥은 가장 친한 친구인 아이반과 루비가 사는 동물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2-3. 122쪽에서 밥은 “아이반과 루비에겐 내가 최상의 강화 프로그램이야”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3. 용기와 희생에 대하여

3-1. 밥에게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밥은 왜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할까요?

3-2. 밥은 왜 아이반과 루비에게 보스에 대해 말하지 못했을까요?
 “잘못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후련하네”(258쪽)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4. 용서에 대하여

4-1. 밥은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한 인간들, 도저히 용서 못 해”라고 보스에게 말합니다. 밥은 용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용서란 정말 무엇일까요?

4-2. 보스는 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살면서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지만, 꽤 여러 번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어. 하루하루 살아 내자면 어쩔 수 없었거든.”(280쪽)

보스는 왜 밥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3 밥은 “한때 내가 누나를 외면해 버렸어. 그래서 지금 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거야”(316쪽)라고 하면서 보스의 새끼를 구하러 갑니다.

이 행동은 밥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 개와 인간에 대하여

5-1. 밥이 생각하는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밥은 개와 인간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5-2. 강아지였던 밥과 그의 형제들을 고소도로의 달리는 차에서 내던져 버린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5-3. 밥처럼 길거리에 유기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개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제 활동] 더 나아가 알아보아요

.....

1. 개는 정말로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일까요?

이 책에는 ‘충견 하치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떠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린 실제로 있던 개의 이야기이지요. 하치코의 이야기를 책이나 인터넷에서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밥과 하치코의 삶을 비교해서 봅시다.

2. 진실은 소설보다 더 강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밥>은 소설 작품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아이반은 실제로 있었던 고릴라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아이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반>을 읽고 소설 속 이야기와 실제 이야기를 비교하고 서로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나아가 작가는 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설에 썼을지 토론해 봅시다.

3. 멸종 위기의 동물들

이 책에 등장하는 동물원 속의 동물들 중에서는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데요. 멸종위기종인 동물들을 알아보고 이 동물들을 위해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4. 더 좋은 동물원 만들기

예전의 동물원이 동물을 전시하고 관람하러 온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요즘에는 동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원들을 조사해 봅시다. 어떤 동물들이 있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작가의 말] 밥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아지예요

.....

밥은 원래 어느 서부 로랜드 고릴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저의 책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이반》에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실존 고릴라인 아이반은 워싱턴주 터코마시에 있던 서커스 쇼핑몰 우리에 혼자 갇힌 채 27년을 살았어요. 아이반에게 밥 같은 친구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모르겠군요. 다만 아이반이살았던 쇼핑몰에 실제로 애완동물 가게가 있었고, 아이반을 보러 오는 방문객도 많았어요. 그런 곳에서 동물들의 우정이 싹트는 상상을 하는 게 저로서는 별로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밥은 그렇게 탄생했어요. 아이반의 우리에 난 구멍으로 들락거리려면 밥은 작아야 했어요. 피가 많아야 했고, 또 거리에서 사는 개인 만큼 자유롭고 거칠고 단순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어야 했어요.

밥은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어두운 면도 많이 겪었지요. 밥은 아마도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할 거예요(그리고 어쩌다 보니 밥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고릴라예요). 밥은 아주 작은 개인데 짙어진 짐은 꽤나 크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밥은 토네이도와 올빼미, 홍수와 늑대, 공포, 죄의식, 자기 의심 등 많은 걸 경험한답니다.

그 모든 역경을 겪고 난 후에도 밥은 특유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그만 잡종견은 자기 안의 착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설령 독실한 고양이 팬이라 해도 밥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길 바랍니다.

- 캐서린 애플게이트 (뉴베리 상 수상작가)